



**김형섭**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 교실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보철과 수련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임상강사, 임상조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조교수
- 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조교수

근관치료를 받은 치아는 정상적인 치아보다는 치질이 손상되기 때문에, 특히 치관부의 많은 부분이 소실된 치아에서는 근관내에 포스트를 위치시키고 코어를 올려서 수복하게 된다. 이때 임상에서 포스트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1) 치아의 길이 및 폭경, 근관의 형태, 남아있는 치관부 치질의 양과 같은 치아의 형태학적인 요인, 2) 가해지는 torque, stress와 같은 치아에 가해지는 외부 환경, 3) 포스트의 형태, 재료의 종류, 생체 친화성, bonding capability과 포스트 자체에 관련된 요인 및 4) retrievability 5) 심미성 등이 있을 수 있다.

포스트의 종류로는 크게 주조포스트 및 기성포스트로 나눌 수 있으며, 기성 포스트는 포스트의 재질에 따라 stainless, titanium과 금속 계통 및 ceramic, fiber-reinforced composite과 같은 비금속성

재질로 나눌 수 있으며, 근관치료를 받은 치아의 파절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포스트의 형태 뿐 아니라 포스트의 재질이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재료학적인 면에서 보면 치아, 특히 상아질과 탄성 계수가 비슷한 재료면서 치질과 결합할 수 있는 재질이 파절저항 값이 크고 파절시의 상태도 favorable 하며, 보철물에 대한 심미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에는 임상인들의 관심이 금속보다는 비금속 계통의 기성포스트에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강연에서는 각종 포스트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점 및 기성포스트 중에서 fiber-reinforced composite 계통의 tooth-colored 포스트에 대해 역사적인 고찰 및 장점, 기계적, 물리적인 성질,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에 관한 정보 및 임상 적용에 관한 내용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